

임부의 우울, 스트레스, 사회적지지가 모성역할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이윤정¹, 김연실^{2*}, 박규희³

¹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간호학과, ²두원공과대학교 간호학과, ³안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The Effects of Self-confidence in Maternal Role of Pregnant Women on Depression, Stress and Social Support

Yun-Jeong Lee¹, Youn-Sil Kim^{2*}, Gyu-Hee Park³

¹Department of Nursing, Catholic Kkotongnae University

²Department of Nursing, Doowon Technical University

³Anyang Community Addiction Management Center, Anyang, Korea

요약 본 연구는 임부의 우울,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모성역할자신감을 확인하고 모성역할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료수집은 임부 및 영유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K지역 보건소 2곳을 임의 선정하였고 최종 172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기술통계와 피어슨의 상관계수 및 다중회귀 분석을 위해 SPSS 24.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우울은 평균 1.81점, 스트레스는 평균 2.89점, 사회적지지는 평균 3.85점, 모성역할자신감은 평균 2.71점 이었다. 모성역할자신감과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r=-.245, p=.001$), 사회적지지는 정적 상관관계($r=.193, p=.01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부의 스트레스는 낮을수록, 사회적지지는 높을수록 모성역할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역할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스트레스($\beta=-.222, p=.004$), 사회적지지($\beta=.176, p=.034$)가 있었으며, 일반적 특성 중에는 임신 주수($\beta=.181, p=.014$)로, 이 요인들이 모성역할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은 전체요인이 미치는 영향력 중 21%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모성역할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또한 추후 임부의 우울과 모성역할자신감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s of depression,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pregnant women on self-confidence in the maternal role. The study analysis was conducted on a total of 172 pregnant women in two community health center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4.0 program for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ean score of depression,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confidence of the maternal role were 1.81, 2.89, 3.85 and 2.71, respectively.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r=-.245, p=.001$) between the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stress, whereas a positive correlation ($r=.193, p=.011$) between the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social support was observed. Stress ($\beta=-.222, p=.004$) and social support ($\beta=.176, p=.034$) were major factors affecting self-confidence in the maternal role along with the pregnancy period ($\beta=.181, p=.014$) as an average factor. Those three factors took 21% in total among all other factors, which could affect self-confidence in the maternal rol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programs to enhance the level of maternal role confidence and confirm the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maternal role confidence of pregnant women.

Keywords : Pregnant Women, Depression, Stress, Social Support, Self-Confidence in Maternal Role

*Corresponding Author : Youn-Sil Kim(Doowon Technical Univ.)

email: sil0218@doowon.ac.kr

Received September 27, 2021

Accepted January 7, 2022

Revised November 1, 2021

Published January 31, 2022

1. 서론

여성의 임신과 분만의 과정은 임부 개인에게 모성이라는 역할에 적응해야 하는 새로운 경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부는 우울, 공포, 불안 등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1]. 국내 임부를 대상으로 한 Lee and Youk[2]의 연구에서 산전우울이 30.4%로 나타났고, Kim and Hwang[3]의 연구에서는 중증우울이 31.9%, 경증우울은 12.7%로 나타났으며, 해외 임부의 우울에 관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우울 비율이 6-38%로 다양하게 나타나[4] 우울을 경험하는 임부가 많고 이에 대한 진단과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임부의 우울은 태아와의 관계와 애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며[5,6], 또한 저체중아 출산 등 태아의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산후 우울까지 영향을 미쳐 자녀의 성장발달에도 위험이 초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임부는 출산일이 가까울수록 출산에 대한 두려움과 조기진통, 기형아 출산 등의 불안으로 스트레스 정도가 높았다[8]. 임부의 스트레스는 수면의 질에 영향을 주고[6] 피로를 야기해 태아의 건강 뿐 아니라 출산 후에도 산모의 역할 취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8,9]. 이렇듯 임부가 경험하는 우울과 스트레스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모성역할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주어 태아와 출생 이후의 아동건강과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6,10]. 따라서 임부의 우울과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중재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의 긍정적인 경험을 강화시키고 자녀양육과 모성역할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임부의 사회적지지는 우울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며,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3,11,12]. 사회적지지가 높은 임부는 우울이 유의하게 낮았고[13],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모성역할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사회적지지는 위기 상황에서 우울을 감소시키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함으로 모성역할 획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14]. 또한 선행연구에서 모성건강관리 교육과 같은 사회적지지 체계를 제공받은 임부는 모성역할자신감이 유의하게 증가했다는 결과를 통해 사회적지지가 모성역할자신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15].

모성역할은 어머니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아기의 요구에 따른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며[16], 모성역할자신감

은 출산 후 영아의 양육적인 역할에 대해 어머니가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자기효능감을 의미한다[17]. 선행연구에서 모성역할자신감 증진을 위해 우울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게 중요하며, 이러한 우울과 스트레스는 사회적지지가 중요한 완충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18].

모성역할자신감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출산 후 산모의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모애착, 양육스트레스[19-21], 분만경험, 모성정체감, 산후 우울[22], 모성역할만족도 및 스트레스[23]와 관련이 있었고, 모성역할자신감의 영향요인으로 출산경험과 양육스트레스[20], 사회적지지, 임신 중 불안, 분만 전 태애착[21]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에서는 초산모[21], 경산모[19,21], 제왕절개 산모, 산욕초기 산모[20] 등 산모를 대상으로 모성역할자신감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임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산전관리프로그램 중재[15,24], 진통스트레스와 모성역할자신감의 관계[10,25] 등 이었으며 모성역할자신감의 영향요인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임부에게 모성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26] 강조하고 있으므로 임부를 대상으로 모성역할자신감의 영향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부의 우울,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모성역할자신감의 정도를 파악하고 모성역할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확인함으로써 임부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간호중재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부의 우울,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및 모성역할자신감을 파악하고 모성역할자신감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K지역 보건소 2곳을 임의로 선정하여, 보건소를 방문하는 임부를 대상으로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188명에게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시작 전 연구자가 직접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경우 서면동의서를 받고 조사를 실시

하였다. 또한 개인 정보에 대한 익명성 보장과 중도철회 가능, 자료폐기, 수집된 자료는 연구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양측검증, 유의수준 .05, 중간효과크기 0.3, power 0.9로 설정하여 109명이 산출되었다[27]. 수집된 자료 188부 중 자료가 누락된 16부를 제외하고 172부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우울

우울은 Cho 등[28]이 표준화 한 한국어판 CES-D를 사용하였다. Likert 4점 척도의 20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 등[2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3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86이었다.

2.3.2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Cohen 등[29]이 개발한 스트레스 지각 도구로 측정된 값으로, Likert 5점 척도의 10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84, 본 연구의 Cronbach's α =.73이었다.

2.3.3 사회적지지

사회적지지는 Liabsuetrakul 등[30]이 개발한 도구를 Kim 등[31]이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Likert 5점 척도의 10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82, 본 연구는 Cronbach's α =.84이었다.

2.3.4 모성역할자신감

모성역할자신감은 Park[32]이 개발한 35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안위와 안전, 영아의 행동, 수유관리, 위생관리 및 건강과 질병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감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Cronbach's α =.95이었고, 본 연구Cronbach's α =.97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 Pearson's correlation, 모성역할자신감의 영향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72)

Variables	Characteristics	n(%)	M±SD
Age(years)			32.3±4.07
Education	High school	12(7.0)	
	College	38(22.1)	
	Undergraduate	105(61.0)	
	Graduate school	17(9.9)	
Duration of marriage(month)	<12	57(33.1)	
	12-23	40(23.3)	
	24-35	25(14.5)	
	36-47	20(11.6)	
	≥48	30(17.5)	
Family	With Parent	15(8.7)	
	Only couple	149(86.6)	
	Others	8(4.7)	
Gestational period	≤12wk	20(11.6)	23.8±9.21
	13-24wk	63(36.6)	
	25-36wk	75(43.6)	
	≥37wk	14(8.1)	
Number of child	No children	135(78.5)	
	=1	30(17.4)	
	≥2	7(4.1)	
Intended pregnancy	Yes	127(73.8)	
	No	45(26.2)	

3.2 대상자의 우울,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모성역할자신감

Table 2와 같이 대상자의 우울은 평균 1.81점, 스트레스는 평균 2.89점, 사회적지지는 평균 3.85점, 모성역할자신감은 평균 2.71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 (N=172)

Variable	M±SD	Range	Min	Max
Depression	1.81±.38	1-4	1.15	3.45
Stress	2.89±.47	1-5	2.00	4.00
Social Support	3.85±.38	1-5	2.00	4.70
Self-confidence in maternal role	2.71±.76	1-5	1.00	5.00
Safety related	2.69±.75		1.00	5.00
Behavioral related	2.66±.76		1.00	5.00
Feeding related	2.65±.82		1.00	5.00
Sanitary related	2.78±.87		1.00	5.00
Health related	2.74±.83		1.00	5.00

3.3 연구변수 간의 관계

대상자의 모성역할자신감은 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r=-.245, p=.001$), 사회적지지와 정적 상관관계($r=.193, p=.01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지지가 높고,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모성역할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N=172)

Variable	Depression	Stress	Social Support	Self-confidence in maternal role
	r(p)			
Depression	1			
Stress	.313(<.001)	1		
Social Support	-.318(<.001)	-.157(.039)	1	
Self-confidence in maternal role	-.026(.793)	-.245(.001)	.193(.011)	1

3.4 모성역할자신감의 영향요인

모성역할자신감의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 값은 1.970으로 각 독립변수 간의 자기상관이 없었고, 공차한계 값은 0.1 이상, VIF값은 10보다 작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아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다. 임부의 모성역할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스트레스($\beta=-.222, p=.004$), 사회적지지($\beta=.176, p=.034$)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에는 임신 주수($\beta=.181, p=.014$)로 나타났고, 전체 영향력은 21%이었다(Table 4).

Table 4. Factors influencing Self-confidence in the Maternal Role (N=172)

Variable	B	SE	β	t	p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Constnat)	1.972	1.010		1.953	.003		
Gestational period	.015	.006	.181	2.482	.014	.983	1.017
Depression	.224	.159	.113	1.405	.162	.830	1.205
Stress	-.447	.155	-.222	-2.887	.004	.883	1.113
Social Support	.259	.121	.176	2.143	.034	.898	1.114

R² = .210, F = 4.470, p < .001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임부의 우울,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모성역할자신감을 확인하고, 모성역할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임부의 우울은 중간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임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3,15]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 임부의 우울은 중간수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33]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임부의 나이, 출산경험 등 개인적 특성과 고위험 임신, 기형여부 등 임신관련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향후 임부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우울 수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부의 스트레스는 중간수준 정도, 사회적지지는 중간수준보다 높게 나타났고, 이는 선행연구[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사회적지지는 개인의 심리적 적응을 돕고, 스트레스나 우울에 노출된 개인을 보호하여, 스트레스로 초래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므로[11,12], 임부의 사회적지지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모성역할자신감은 중간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경산모보다 초산모가 모성역할자신감이 낮고[10], 출산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높아진다고 제시[22]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임부들이 대부분 초산모로 모성역할자신감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초산모의 모성역할자신감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증재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임부의 모성역할자신감과 스트레스는 부적 상관관계, 사회적지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 결과[9,18,23]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임부의 스트레스는 태아와의 애착형성과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출산 후 모성역할수행에도 영향을 주고[10], 출생이후의 아동 건강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6]. 또한 임부의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상태는 사회적지지가 완충효과가 있어[12], 위기 상황에서 불안을 감소시키고 모성역할획득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서 모성역할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21]. 선행연구[15]에서 임부가 출산 전 지역사회 기관에서 제공된 신생아 관리, 모유수유, 라마즈 호흡법 등 모성건강교육을 받은 경우 모성역할자신감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지역사회의 지원정책이나 가족의 지지가 모성역할자신감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울이 모성역할자신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바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우울과 모성역할자신감과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산후 우울정도가 심할수록 모성역할자신감 점수가 낮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던 연구[18]와 유사하며, 임부의 우울이 애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연구[6]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비록 통계적인 유의미한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우울이 모성역할자신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추후 우울과 모성역할자신감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모성역할자신감을 향상시키는 영향요인은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로 나타났고, 일반적 특성에서는 임신주수로 확인되었다. 임부는 임신주수가 높을수록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산전관리 프로그램에 노출되는 횟수가 증가함으로써 모성역할자신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는 모성역할자신감에 영향력 있는 예측변인이라고 제시한 결과[20,21]와 일치하며, 모성과 태아의 애착에도 가장 영향력있는 변수가 사회적지지라고 한 선행연구[6]와도 유사하다. 따라서 임신기간 동안 임부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확대적용하고, 배우자 및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산전관리와 양육관련 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활용을 통해 사회적지지를 향상시킨다면 모성역할자신감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모성역할자신감에 영향요인으로 우울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회적지지가 높을수록 우울이 낮게 나타나고 [2,3,13],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3,6] 선행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영향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추후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임부의 모성역할자신감에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모성역할자신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영향요인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우울과 모성역할자신감의 관계를 규명하는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R. T. Mercer, K. A. May, S. Ferketich, J. DeJoseph, "Theoretical models for studying the effect of antepartum stress on the family", *Nursing Research*, Vol.35, No.6, pp.339-346, Nov. 1986.
DOI:<https://doi.org/10.1097/00006199-198611000-00008>
- [2] S. H. Lee, G. Y. Youk, "Factors Affecting Antenatal Depression of Pregnant Wome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2, pp.753-762, Feb. 2018.
DOI:<https://dx.doi.org/10.35873/ajmahs.2018.8.2.074>
- [3] Y. L. Kim, S. W. Hwa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n Antenatal Depression", *Journal of Health Informatics and Statistics*, Vol.43, No.4, pp.336-343, Dec. 2018.
DOI:<https://doi.org/10.21032/jhis.2018.43.4.336>
- [4] T. Field, "Prenatal Depression Effects on Early Development: A review",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Vol.34, No.1, pp.1-14, Feb. 2011.
DOI:<https://doi.org/10.1016/j.infbeh.2010.09.008>
- [5] B. Figueiredo, R. Costa, "Mother's Stress, Mood and Emotional Involvement with the Infant: 3 months before and 3 months after Childbirth", *Archives of Women's Mental Health*, Vol.12, No.3, pp.143-153, Mar. 2009.
DOI:<https://doi.org/10.1007/s00737-009-0059-4>
- [6] M. K. Kwon, K. S. Bang, "Relationship of Prenatal Stress and Depression to Maternal-Fetal Attachment and Fetal Growth",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Vol.41, No.2, pp.276-283, Apr. 2011.
DOI:<https://doi.org/10.4040/ikan.2011.41.2.276>
- [7] T. Deave, J. Heron, J. Evans, A. Emond, "The Impact of Maternal Depression in Pregnancy on early Child Development", *BJO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Obstetrics & Gynaecology*, Vol.115, No.8, pp.1043-1051, Jun. 2008.
DOI:<https://doi.org/10.1111/j.1471-0528.2008.01752.x>
- [8] M. Y. Chung, K. H. Hwang, O. H. Cho, "Relationship between Fatigue, Sleep Disturbance, and Gestational Stress among Pregnant Women in the Late Stage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20, No.3, pp.195-203, Sep. 2014.
DOI:<https://doi.org/10.4069/kiwhn.2014.20.3.195>
- [9] S. K. Kang, M. R. Chu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egnant Woman's Stress, Temperament and Maternal-fetal Attachmen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21, No.2, pp.213-223, Apr. 2012.
DOI:<https://doi.org/10.5934/KJHE.2012.21.2.213>
- [10] H. J. Son, J. S. Park, "Relationship between Preterm Labor Stress, Fetal Attachment and Maternal Role Confidence in Pregnant Women with Preterm Lab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Vol.18, No.1, pp.86-96, Jan. 2014.
DOI:<https://doi.org/10.21896/iksmch.2014.18.1.86>
- [11] G. D. Zimet, N. W. Dahlem, S. G. Zimet,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52, No.1, pp. 30-41, Jun. 1988.
DOI:https://doi.org/10.1207/s15327752jpa5201_2
- [12] J. Krzepota, D. Sadowska, "Associations between health behavior habits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in pregnant women: a preliminary investigation in Polish

- sample”, *Central European Journal of Sport Sciences and Medicine*, Vol.10, No.2, pp.45-53, Mar. 2015.
- [13] S. Y. Han, Y. K. Han, “Effects of Social Support, Sleep Quality and Oral Health Impact Profile on Depression among Pregnant Women”, *Journal of Dental Hygiene Science*, Vol.17, No.2, pp.134-141, Apr. 2017.
DOI:<https://doi.org/10.17135/jdhs.2017.17.2.134>
- [14] I. H. Le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Intervention on Mood and Maternal Confidence of Premature’s Mothers”, *Journal of Korean of Nursing*, Vol.30, No.5, pp.1111-1120, 2017.
DOI:<https://doi.org/10.4040/jkan.2000.30.5.1111>
- [15] Y. S. Kim, Y. J. Lee, G. H. Park, “The Effect of Maternal Care Program on Depression, Maternal Role Self-confidence and Delivery Self-efficacy in Pregnant Women”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3, No.2, pp.134-141, Mar. 2017.
DOI:<https://doi.org/10.14370/jewnr.2017.23.2.134>
- [16] R. T. Mercer, “Becoming a Mother versus Maternal Role Attainment”, *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 Vol.36, No.3, pp.226-232, Sep. 2004.
DOI:<https://doi.org/10.1111/j.1547-5069.2004.04042.x>
- [17] E. M. Kiehl, M. A. White, “Maternal Adaptation during Childbearing in Norway,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Vol.17, No.2, pp.96-103, May. 2003.
DOI:<https://doi.org/10.1046/j.1471-6712.2003.00116.x>
- [18] M. K. Kwon, H. W. Kim, N. S. Kim, J. A. Jang, “Postpartum Depression and Maternal Role Confidence, Parenting Stress, and Infant Temperament in Mothers of Young Infant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Vol.12, No.3, pp.314-321, Jul. 2006.
- [19] E. N. Emmanuel, D. K. Creedy, W. S. John, C. Brown, “Maternal role development: the impact of maternal distress and social support following childbirth”, *Midwifery*, Vol.27, No.2, pp.265-272, Apr. 2011.
DOI:<https://doi.org/10.1016/j.midw.2009.07.003>
- [20] J. Y. Ha, Y. J. Kim, “Factors Influencing Self-confidence in the Maternal Role among Early Postpartum Mother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Vol.19, No.1, pp.48-56, Mar. 2013.
DOI:<https://doi.org/10.4069/kjwhn.2013.19.1.48>
- [21] S. S. Chung, K. H. Joung, “Comparative Study on Predictors of Maternal Confidence between Primipara and Multipara”, *Journal of Korean Academic Child Health Nursing*, Vol.17, No.3, pp.181-189, Jul. 2011.
DOI:<https://doi.org/10.4094/jkachn.2011.17.3.181>
- [22] H. E. Oh, “The Relationship among Maternal Identity, Role Attainment and Postpartum Depress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Vol.5, No.2, pp.255-266, Jul. 2001.
- [23] I. S. Kang, The Relationship of Stress, Perception of infant, Self-Confidence and Satisfaction in the Role Performance of Mothers in Postpartum Perio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Korea, 2005.
- [24] C. S. Sim, Y. S. Lee, “Effects of a Yoga-focused Prenatal Program on Stress, Anxiety, Self Confidence and Labor Pain in Pregnant Women with In Vitro Fertilization Treatmen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42, No.3, pp.369-376, Jun. 2012.
DOI:<https://doi.org/10.4040/jkan.2012.42.3.369>
- [25] J. N. Oh, “Effects of Providing Information on Stress and Maternal Role Confidence of Women with Preterm Labor” *Korean aren’t-Child Health Journal*, Vol.10, No.2, pp.201-211, Dec. 2007.
- [26] R. T. Mercer, L. O. Walker, “A review of nursing interventions to foster becoming a mother”, *Journal of Obstetric, Gynecologic & Neonatal Nursing*, Vol.35, No.5, pp.568-582, Oct. 2006.
DOI:<https://doi.org/10.1111/j.1552-6909.2006.00080.x>
- [27] F. Faul, E. Erdfelder, A. G. Lang, A. Buchner, “G* 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39, No.2, pp.175-191, May. 2007.
DOI:<https://doi.org/10.3758/bf03193146>
- [28] M. J. Cho, K. H. Kim, “Diagnostic validity of the CES-D(korean version) in the assessment of DSM-III-R major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32, No.3, pp.381-399, Aug. 1993.
- [29] S. Cohen, T. Kamarck, R. Mermelstein,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24, No.4, pp. 385-396, Dec. 1983.
DOI:<https://doi.org/10.2307/2136404>
- [30] T. Liabsuetrakul, A. Vittayanont, J. Pitanupong, “Clinical applications of anxiety, social support, stressors, and self-esteem measured during pregnancy and postpartum for screening postpartum depression in Thai wome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aecology Research*, Vol.33, No.3, pp.333-340, Jun. 2007.
DOI:<https://doi.org/10.1111/j.1447-0756.2007.00532.x>
- [31] Y. A.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Social Support and Compliance of Prenatal Care in Immigration Pregnancy Women”,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Korea, 2008.
- [32] M. S. Park, “Comparative Study on the Infant Care Confidence of Maternal and Child Room”,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1991.
- [33] H. H. Shin, Y. H. Shin, “Life Stress, Social Support, and Antepartum Depression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from Southeast Asia”, *Journal of Korean Academic Community Health Nursing*, Vol.26, No.2, pp. 108-118, Jun. 2015.
DOI:<https://doi.org/10.12799/jkachn.2015.26.2.108>

이 윤 정(Yun-Jeong Lee)

[정회원]



- 199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간호학석사)
- 2008년 2월 : 한양대학교 대학원(간호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청소년건강, 만성질환, 우울, 스트레스 등

김 연 실(Youn-Sil Kim)

[정회원]



- 2010년 8월 : 충남대학교 대학원(간호학석사)
- 2013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간호학박사-정신간호)
- 2016년 3월 ~ 현재 : 두원공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정신건강, 우울, 스트레스, 자기초월 등

박 규 희(Gyu-Hee Park)

[정회원]



- 2007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정신전문석사)
- 2019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간호학박사)
- 2020년 1월 ~ 현재 : 안양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관심분야>

정신건강, 중독, 부부치료 등